



전북생명숲 공동대표 헌수금



우이1동 상생협의회 헌수금



한옥마을 수공예작가협회 헌수금

전주역 앞 백제대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사람을 위한 거리'로

# 시민들, 직접 후원 잇따라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사람을 위한 거리로 만드는 첫 마중길을 함께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첫 마중길 명품 가로숲 조성을 위한 시민희망나무 헌수식을 가졌다. 이날 헌수식에 참여한 전북 생명의 숲 등 11개 개인·단체는 성공적인 첫 마중길 조성공사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 역 주변에 오래 머물고, 이러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총 1800만원의 시민희망나무 헌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로써, 전주 첫 마중길 조성을 위한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에는 지난해 5월 1호 참여기업의 헌수를 시작으로 기업과 단체, 일반 시민 등의 기부 참여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110건에 총 1억4,100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전북 생명의 숲 공동대표 한옥마을 수공예작가협회 스카우트 전북연맹 등 참여 현재까지 1억4천여만원 모금**

시는 자동차만 빠르게 지나쳐갔던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공사를 통해 사람이 돌리고 문화가 넘쳐흐르는 거리와 광장으로 자리매김해 역세권 경계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할 첫 마중길을 안전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 기존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도로선형을 바꿨다. 곡선도로 개설은 차량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주요도시들도 기존의 직선형 도로를 곡선형으로 바꾸는 추세다.

이와 관련, 첫 마중길 조성사업은 백제대로 850m 구간의 기존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고, 인도 폭을 축소하는 대신 도로 중앙에 15~20m의 보행광장을 만들어 느티나무 230주와 이팝나무 170여주가 식재된 명품 가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FIFA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와 개막전 손넙맞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요공정을 대회전까

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는 5월 24일에는 시민들과 헌수참여자, 인근지역 주민·상인들과 함께 헌수식 및 기념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헌수식에서는 △길놀이 대동합굿 △새싹 저금통 △마중길 잔치국수 △생활문화 동호회 공연 △생활문화 동호회 전시·홍보·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도시의 첫인상을 바꾸는 첫 마중길 사업의 성공과 전주시 발전을 기원하며 시민헌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수금을 기탁한 개인·단체는 △양기해·김택천 전북 생명의 숲 공동대표(100만원) △우아1동 첫마중길 상생협의회(200만원) △한옥마을 문화장터 수공예작가협회(200만원) △한곡스카우트 전북연맹 코끼리지역대(100만원) △유혜숙 코끼리유치원 원장(100만원) △봉필호 (유)페넌스 대표(100만원) △이진일 한백중합건설 대표(200만원) △김준석 첫마중길 현장소장(200만원) △김숙자 (주)세진산업 대표(200만원) △맹홍호 한림로텍스 대표(200만원) 등이 다. /김민근 기자

전주형 복지사업에 시민참여 급증

## '우리가 직접 따뜻한 사회 만든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전주시를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참여하는 '천사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헌수는 물론,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등 단 한 사람도 복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만드는 전주형 복지사업에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대표적으로,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첫 번째 결재사업인 '밥 굵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총 5억 5496만여원의 시민 성금이 모금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아침밥상을 함께 차리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도서지원으로 마음에 지식을 더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도 기관 및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57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저소득 폐수거 어르신들을 돕는 '희망 줄은 손수레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후원하는 '말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에도 각각 7012만원과 1억여원 상당(현물 포함)에 달하는 시민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공동체 조성과 각종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전주를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총 17만여 명으로, 사회 전반에 돌봄과 나눔, 봉사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과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7일부터 열흘간 펼쳐지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오는 5월 20일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 등 주요 행사와 축제 등은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속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들은 전주형 동네복지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돌보았으며, 최근에는 동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인 동네기획단도 구성했다.



한곡스카우트 전북연맹 헌수금



코끼리유치원 헌수금



한림로텍스 헌수금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